

“대형 참사 안돼… 안전이 기본인 사회 만들어야”

SOCIETY

2025년 6월 10일 화요일

광주 동구 학동 참사 4주기 추모식

희생자 애도·안전의식 고취…유가족 등 100명 참석 추모공간 마련 촉구…행정기관·기업 관리소홀 지적

“다시는 대형 참사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안전한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광주 동구 학동 참사 4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애도하고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추모식이 9일 광주 동구청 사 일원에서 진행됐다.

이날 추모식에는 유가족을 비롯한 강기정 광주시장, 신수정 광주시의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임택 동구청장, 세월호·대구지하철 참사 유가족,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추모식은 참사 발생 시간인 오후 4시22

분 희생자를 기리는 묵념을 시작으로, 헌화, 추도사, 연대 발언, 추모 공연, 유가족 인사말, 애도의 시간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추모 공연에는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으로 구성된 416합창단과 대구 지하철 참사 유족이 만든 218합창단이 함께해 유가족들의 아픔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안전사회 구축을 다짐했다.

유가족과 추모객은 고인의 위패 앞에

한 송이 조화를 올리며 고개를 숙였다.

이날 유가족들은 연대 발언을 통해 행

정당국과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황옥철 광주 학동참사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참사의 원인은 가해 기업의 부실공사도 있었지만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소홀도 있었다”며 “그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광주는 유가족에게 추모사업, 긴급구호 지원, 제도개선 안전관리강화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이행 의지를 보였지만 추모식을 제외하면 대부분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416합창단원인 김영래씨(55)는 “지금까지 유가족을 위해 진심 어린 사과와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앞으로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정부에서 먼저 나서서 책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기정 시장은 “지난 4년 동안 슬픔을 견뎌오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

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함을 이 자리에서 새기며 시민의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생명 중심의 도시, 광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임택 청장은 “동구는 참사의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 건축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 자문단과 재개발조합 기획점검반을 통해 조합 설립 단계부터 준공까지 책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약속했다.

추모식에 앞서 광주학동참사유가족협의회와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은 동구청에서 광주시,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책임 촉구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4년이러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추모공간 등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영업정지 처분을 피해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광주시는 학동 참사와 관련된 비용을 HDC현대산

업개발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며 문제 해결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는 학동참사의 추모공간 마련과 사고버스 존치 문제, 피해 유가족의 후속지원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하며 HDC현대산업개발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참사 재발을 막는데 앞장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 동구 학동 붕괴참사는 지난 2021년 6월9일 오후 4시22분 학동 4구역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지상 5층 규모 건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정차 중이던 시내 버스를 덮쳐 버스에 타고 있던 17명(사망 9명·부상 8명)이 죽거나 다쳤다.

송태영 기자 sty1235@

임재용 인턴기자 djawody031@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오늘의 날씨

예보 05:18 달출 19:09
예전 19:46 달진 03:57



광주	☀	20~30
목포	☀	19~27
여수	☀	19~25
순천	☀	18~29
구례	☀	18~31
광주	☀	17~29
임도	☀	18~28
흑산도	☀	17~22
고흥	☀	18~28
진도	☀	17~26

목포	밀물(고)	01:38 / 13:20
	썰물(저)	07:03 / 18:46
여수	밀물(고)	08:11 / 20:59
	썰물(저)	02:30 / 14:08

“너무 억울”…해임된 사무관 행정소송

민선3기 장휘국 전 교육감 시절 광주시교육청의 최대 비리 사건으로 꼽히는 ‘매입형 유치원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해임된 사무관이 광주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9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직 시교육청 사무관 A씨(55)가 시교육청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행정소송의 첫 공판이 오는 12일 열린다.

‘매입형 유치원 사건’은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사립유치원을 시교육청이 매입해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

문서를 전송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A씨 행위가 유치원 선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나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점을 고려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에 선고했다. B씨도 2020년 3월 매입형 유치원 사업 선정을 노리는 유치원장에게 “공무원들과 친분이 있으니 편의를 봐줄 수 있다”며 접대비 명목 현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4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해임 처분을 받은 A씨는 이에 불복,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B씨 부탁을 거절하기

광주교육청 ‘매입형 유치원 사건’ 관련 12일 첫 공판

정년 6년 앞두고 해임 처분…연금·퇴직금 절반 삭감

는 과정에서 그 선정을 노린 유치원장과 브로커 등이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건이다. 당시 60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현직 시의원이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돼 국내에서 수감 중 올해 1월 사망했다.

A씨는 2021년 3월께 과거 시교육청 출입기자로 친분을 쌓아온 B씨로부터 2021년 매입형 유치원 선정계획 내부 정보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A씨는 그해 4월 같은 과 주무관에게 전자문서시스템에 등록되지 않는 체 작성 중이던 2021년 매입형 유치원 선정계획안을 요청. 일부 내용을 촬영해 B씨 휴대전화로 전송했다.

해당 계획안이 장휘국 교육감의 승인을 얻자 A씨는 B씨의 요청으로 평가요소, 선정위 구성안 등이 포함된

어려웠고, 그에게 전달한 계획안이 제3자에 전달되지 않는 등 선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정보 공개가 가능한 자료들이라 기밀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다른 피의자들이 수천만원의 대가성 현금을 주고받은 데 비해 자신은 일절 금품을 받지 않은 점을 정상 참작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A씨는 정년을 6년 앞두고 해임 처분을 받아 연금의 절반을 삭감당하고, 퇴직금 1억원의 절반을 받지 못하게 됐다. A씨는 “홍보업무라는 생각에 거절하기 힘든 부탁을 들어주다 여러 사건에 미친 영향이 전혀 없음에도 제가 감당해야 할 경제적 손실은 너무 크다”고 호소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



안전 점검의 날 캠페인 9일 광주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 광장에서 열린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에서 교윤순 광주시안전모니터봉사단 연합회장과 봉사자들이 시설물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빛 때문에”…처자식 살해한 비정한 가장 자백

임금체불·카드빚 등…아내와 범행 공모

억대 채무를 비판해 처자식을 차에 태우고 바다로 돌진해 숨지게 한 40대 가장이 범행 전에 아내와 공모한 사실이 드러났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9일 일가족을 태운 차량을 몰고 바다로 돌진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자살방조)로 구속된 40대 A씨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A씨는 건설현장 반장직인 일용직 근로자로 건설사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해 동료 근로자들에게 30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해 지난 2월 노동당국의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노동당국 조사에 따른 신병처리와 생활비 등을 위해 쓴 2억원대 대출과 신

용카드 이용대금 상환 연체가 시작되자 압박감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동갑내기 아내에게 고충을 토로, 부모 없이 남겨질 두 아들을 우려해는 가족이 함께 세상을 등지려 결심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가족여행을 떠나기 전 아내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이후 아내는 조울증 증세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준비하고, 함께 마실 음료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아내 B씨의 정황과 블랙박스 영상에 담긴 부부의 대화 등을 토대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A씨가 차를 바다에 빠트린 장소는 즉흥적 판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보험 가입 내역도 살펴봤으나 부부 앞으로 각기 가입된 건강보험 2건 외에는 눈여겨 볼만한 사항은 없었다.

경찰은 A씨의 아내가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고려, A씨를 두 아들을 살해한 살인과 아내의 자살방조 혐의를 적용해 11일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달 1일 오전 1시12분께 전남 진도항 선착장 인근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바다로 빠뜨려 아내와 10대 두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바닷가 출신으로 수영에 익숙했던 그는 범행 직후 열렸던 차량 창문으로 빠져나와 구조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인의 차를 이용해 광주로 이동, 범행 44시간 만인 지난 2일 광주의 도심에서 긴급체포됐다.

이산화 기자 goback@gwangnam.co.kr

‘절도 전과 3범’ 20대 실형

만년필 ○…절도죄로 3차례 교도소를 복역한 뒤에도 처벌이론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져.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2년을 선고.

A씨는 지난 4월6일 오전 1시50분 광주 광산구 월곡동 한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33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조사 결과 A씨는 절도죄로 3차례(징역 10개월·1년 2개월·2년)나 선고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김연경 부장판사는 “미성년 시절부터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며 “출소 후 약 6개월 만에 절도죄를 저지른 점을 비취할 때 갇살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디케이 주식회사

봄, 공기의 새로운 정의 공간을 빛내는 선택

봄철 미세먼지와 꽃가루도
이제 걱정 없이,
깨끗한 공기를 집 안으로.

모든 순간을 더 건강하게
디케이 공기청청기·살균기

www.e-dk.co.kr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